

하가다 소감문

신세별

하가다를 간다고 했을때 설렘반,걱정반,불안반이었습니다.하가다 첫째날에는 많은기대를 하였습니다.새로운 환경,새로운사람을 만남에 무척 설렘었습니다.그렇게 하가다반으로 들어갔습니다.많은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처음보는 사람들이라 되게 어색했습니다.그래도 교회사람들도 있고 친해진 친구가있어서 괜찮았습니다.친한친구가 있어서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하가다를 열심히 했습니다.밤에는 모르는공간에서 모르는사람들이랑 자는게 싫어서 언니방에서 잤습니다.조용해서 금방 잘수있었습니다.둘째날 일찍 기상해서 아침운동을했습니다.아침밥도 먹고 기운을 냈습니다.다시 준비하고 하가다반으로 갔습니다.역시나 오자마자 하가다부터 했습니다.저는 정말 열심히했습니다.열심히 해서 맛있는것도 많이먹고 그랬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하가다를 할수록 더 행복했고 스스로 치유가 났습니다.점점 익숙해지고 재미를 느꼈습니다.저와 친구는 얼른 성령집회가 오길 바랬고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저희는 정말 열심히 들었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받고 싶은사람은 올라오라고했을때 저와 친구는 바로 올라갔습니다.사람들이 많아서 줄을서서 기다렸습니다.그리고 제 차례가되자 목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하나님이 너를향해 특별한일을 계획하시고 있다.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것이고 너를 큰 리더자로 세우실것이다."저는 이말씀을 듣자마자 결심했습니다.꼭 이뤄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그리고 저는 제게 중요한 말씀이 생겼습니다."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하시니."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이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하가다가 익숙해질때 어느덧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저는 아쉬움을 숨길수 없었습니다.여기서 많은 경험을하고 친해졌는데 너무 일찍 끝나버리는거 같아 아쉬웠습니다.다시 돌아가고싶었고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고싶었습니다.이곳에서 비전을찾고 이것에서 모든것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좋은사람들을 만난거같아 기쁩니다.하가다가 그리워졌습니다.다음에 하가다가 또 있다면 오고싶어졌습니다.하나님 비전을 찾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마의 말씀: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따라오라 내가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가복음 1장 17절말씀

그리고 또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